

2013년 11월 18일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유통·화장품 한 주 따라잡기



▶ 롯데쇼핑 영구채 2,700 억 발행 성공 (한국경제 2013.11.16)

국내 최대 백화점 업체인 롯데쇼핑이 유통업계 처음으로 영구채권 발행에 성공함. 롯데쇼핑은 이자 지급을 미룰 수 있고 만기 연장도 가능한 2,700 억원 규모 30 년 만기 영구채(신종자본증권)를 발행함. 발행금리는 연 4.723%로 결정됨. 롯데쇼핑이 5 년 이후부터 중도상환 권리(콜옵션)를 갖고, 발행 시점으로부터 10 년 뒤에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 보유자에게 이자를 1%포인트 더 올려주는 '스텝업(step-up)' 조건이 포함됨. 이번 영구채 발행금리는 다른 우량 대기업들과 비교해 손색없는 수준이라는 게 시장 평가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연초에 비해 발행 여건이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리한 금리로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롯데쇼핑은 무디스 기준으로 현재 'Baa1(부정적)' 등급인 글로벌 신용등급 방어를 위해 이번 발행을 추진해왔다.

▶ 복합쇼핑몰에 '힘주는' 신세계...독립법인 설립 (한국경제 2013.11.15)

신세계그룹이 교외형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할 별도 법인을 만들. 신세계와 이마트는 쇼핑센터 추진 법인을 연내 설립하기로 했다고 공시함. 새 법인은 이마트가 90%, 신세계백화점이 10%를 출자함. 복합쇼핑몰은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식음료 시설, 테마파크가 결합된 형태라고 설명함. 신세계는 하남, 인천 청라, 의왕, 고양 삼송지구 2016 년부터 차례로 복합쇼핑몰을 열 계획. 신세계가 복합쇼핑몰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은 쇼핑과 여가생활을 함께 즐기는 몰링(malling)이 새로운 소비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 신세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은 가족 단위 쇼핑객이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함.

▶ 슈퍼와 손잡은 SSM.."슈퍼단체에 상품공급, PB 상품 개발 (이데일리 2013.11.14)

대형마트가 개별 슈퍼마켓에 직접 물건을 공급하는 대신, 지역 슈퍼마켓 단체가 대형마트로부터 공동구매하는 방안이 추진됨. 대형마트와 함께 PB 상품도 개발하기로 함. 대형마트가 슈퍼마켓에 상품을 공급하는 도매사업을 두고 '변종 SSM'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나름의 상생방안.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 1 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이 열림. 이날 SSM 사업을 하는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단체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이승한 유통산업연합회 공동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벽을 허물어 모두 함께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 덩치 큰 홈쇼핑, 1 인가구 파고드는 소포장 상품 열전 (헤럴드생생뉴스 2013.11.14)

늘어나는 1~2 인 가구를 잡기 위해 홈쇼핑이 소포장 상품을 고안함. GS 홈쇼핑은 세척 사과를 한 알씩 포장한 '산지에 사과'로 1~2 인 가구를 공략하고 있음. 저렴한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히트상품이 됨. CJ 오쇼핑에서는 하루 먹을 분량씩 포장된 '오하루견과'가 대표적인 1 인 상품임. 프리미엄 소포장 서비스는 다량 구성이 부담스런 1~2 인 가구를 위해 방송 상품의 소량 패키지를 만들어 함께 판매하는 것. NS 홈쇼핑은 싱글족과 노부부 등 소가족을 고려해 NS 정기배달을 지난 5 월 시작함. 식단과 배달받고 싶은 횡수를 선택하고 일정 금액을 내면 정기적으로 제주도 산지에서 수확한 친환경 식료품을 받아보는 서비스. 내부 식자재도 소포장으로 되어 있어 1~2 인 가구가 활용하기에 적합한 방식.

▶ "김장시즌 막 올랐다"...김치냉장고 판매량 급증 (머니투데이 2013.11.13)

이른 추위로 인해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김치냉장고 판매량이 급증함.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12 일 김치냉장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함. 특히 스탠드형 제품의 인기가 높았음. 국내 김치냉장고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약 90%에 달하는 가구보급률을 보이고 있음. 한해 전체 판매량은 약 80 만대로,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0 년과 2011 년 각각 90 만대, 87 만대의 김치 냉장고가 팔림. 이연석 롯데하이마트 상품팀 구매 담당자는 "김치냉장고 보급 초기인 지난 2003~2004 년 주로 판매된 100 리터 전후 제품의 교체주기가 찾아왔다"며 "기존 100 리터급 소형 제품을 사용하던 고객은 300 리터급 스탠드형 모델을, 150~200 리터급 두꺼비형 제품을 사용하던 고객은 400 리터급 스탠드형 모델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말함

탐방 노트 및 주 이슈

▶ 아모레퍼시픽 3Q Review

- 매출액 7,928억원(+8% yoy), 영업이익 856억원(-5% yoy), 순이익 626억원(-10% yoy)
- 디지털, 면세점 채널의 고성장 및 해외 고성장
- 국내 방판 채널 부진, 추석 판매 시점 차이, 해외 투자 확대로 영업이익 역신장

▶ 이마트 10월 실적

- 총매출액 9,314억원(-6% yoy), 영업이익 391억원(-29% yoy)
- 휴무 점포 수 차이 영향. 13년 10월 말 148개점(강제휴무 102, 자율휴무 46), 12년 31개점

▶ 신세계 10월 실적

- 총매출액 3,579억원(-5.6% yoy), 영업이익 218억원(-1.6% yoy), 영업이익률 6.1%(+0.3%p yoy)
- 10월 바겐세일 실적 부진, 13년 의류수요 조기발생으로 실적 부진
- 용역 및 인력운영 효율화, 광고선전비 축소 등 비용 절감, 온라인몰의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률 개선

업종 코멘트

▶ 전주 동향(11/18~11/22)

- 롯데쇼핑,롯데하이마트의 실적 발표 이후 롯데쇼핑은 4분기 턴어라운드 모멘텀 축소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 조정을 보임. 반면 이마트, 신세계는 10월 실적 발표 이후 연간 저점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함. 특히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이마트의 주가 상승이 주목을 받음.
- 생활,화장품: 아모레퍼시픽, 락앤락은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センチ먼트 악화를 반영함. 반면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웨이는 불황 속 실적 호조 및 향후 방향성 전환에 따른 주가 모멘텀을 반영함.

▶ 금주 전망(11/25~11/29)

- 유통: 롯데쇼핑,현대백화점,신세계는 지속되는 정책적 이슈와 서로 엇갈린 3분기 실적 및 4분기 턴어라운드 지속성 유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됨. 그러나 3사 가운데 현대백화점은 3분기를 최저 시점으로 4분기 이후 점진적인 주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최근 급격한 주가 조정으로 업종 내 밸류에이션 수준도 안정적으로 큰 반전에 대한 기대감은 제한적이지만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해 보임. 한편 이마트는 규제 대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경영진들의 구책 마련으로 수익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며 2014년 턴어라운드에 대한 의지를 표명, 이로 인해, 저점 인식을 강하게 반영하며センチ먼트 강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롯데하이마트는 대형 유통 대표주와 달리 4분기 베이스 효과에 이어 기존 롯데 디지털 파크 전환, 롯데마트 내 샵인샵 입점 효과로 실적 개선 및 14년 사업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임. 전통적인 유통주와의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비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홈쇼핑은 4분기 상장 3사를 중심으로 업종 내 산업 성장을 주도하며 불황 속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일시적 밸류에이션 부담을 상쇄할 것으로 보임
- 생활,화장품: 코웨이는 웅진그룹에서 벗어난 1년 사이 선택과 집중의 사업전략을 진행, 지난 3분기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함. 2014년에도 사업 방향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하며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Index	종가(pt)	주간 절대 등락률(%)	Korea Retailers	주간 절대 등락률(%)	Korea Retailers	주간 절대 등락률(%)	Global Retailers	주간 절대 등락률(%)
KOSPI	2,005.64	1.05	롯데쇼핑	-1.6	락앤락	-19.9	Wal-mart	1.2
KOSDAQ	512.74	-0.58	현대백화점	2.3	코웨이	6.0	Carrefour	-0.2
유통업	510.37	0.20	신세계	0.2	아모레퍼시픽	4.3	Tesco	0.7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1.2	LG생활건강	2.5	Wangfujing	-6.7
KRW/USD	1,063.50	-0.09	CJ오쇼핑	4.3	롯데하이마트	-0.2	Parkson	0.8
KRW/JPY	1,060.11	-2.17	GS홈쇼핑	2.6	코스맥스	7.4	Sears	-2.5
KRW/CNY	174.57	-0.11	현대홈쇼핑	1.6	제닉	-2.2	P&G	1.7

자료: Bloomberg, Datastream, IBK투자증권

탐방 및 IR 행사

-IR 행사-

- 11월 19, 20일 홈쇼핑 소규모 점심IR(신청자만 가능)
- 11월 29일(금) 3시반 IBK투자증권 6층 대강당
2014년 유통 전망(롯데미래전략센터 이사 초청 강연)

-탐방-

- 11월 20일(수) 10시 코웨이(동행불가)
- 11월 22일(금) 10시 이마트
- 11월 22일(금) 14시 락앤락(동행불가)

*동행불가 탐방의 경우 탐방노트 요청 가능